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 4일 출범식에서 지자체, 공공·연구기관 및 학계 등 모여 사업 성공 전략 논의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라는 시대적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학·연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4일(목)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
- *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교류를 바탕으로 해안을 모어나가는 협의기구로,
- 지난 1월 25일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정책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그간 정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월 30일)하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3월 21일)하는 등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실현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 협의체는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지하화 기술분과’(12명)는 지역별 최적의 지하화 공법 등을 논의한다. ‘도시개발·금융분과’(12명)는 상부부지 개발 방향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소통·협력을 위한 ‘지역협력분과*’도 운영한다.

* 수도권·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라권

- 협의체는 오늘 개최된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각종 정책적 현안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분과 회의도 수시로 개최한다.
- 특히, 협의체는 정부에서 2분기에 배포 예정인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문과 함께 지자체를 대상으로 완성도 높은 사업 구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 구상 컨설팅도 지원한다.

- 이날 출범식에 참석하는 서울·부산·인천·세종시장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부단체장)은 해당 지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구상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 또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과 관련 국내·외 사례 소개와 사업 추진 시 고려 사항 등에 관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교류를 위한 협의체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열린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상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해 달라”고 하면서,

-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적극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들께서도 그간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아낌없이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철도국 철도건설과	책임자	과 장	오송천 (044-201-3950)
		담당자	팀 장	박선동 (044-201-4390)
			사무관	김정한 (044-201-4393)
			사무관	신우철 (044-201-4391)
			사무관	유찬호 (044-201-4395)
			주무관	임태호 (044-201-4394)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참 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구성 및 출범식 계획

□ 협의체 구성

- 학회·학계, 공공·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포함된 ①지하화기술, ②도시개발·금융 및 지자체 소통을 위한 ③지역협력 등 3개 분과 운영

< 협의체 구성 >

	지하화 기술 분과	도시개발·금융 분과	지역협력 분과
학회 학계	대한교통학회, 한국철도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국토·도시계획학회	수도권·강원권
연구 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부산·울산·경남권
공공 기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LH	대구·경북권
민간	건설사 등	한국리츠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법무회계법인 등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라권

□ 출범식 개요

- **(일시/장소)** '24.4.4(목) 14시~16시 / 서울드래곤시티(용산역)
- **(목적)** 정부와 지자체 협력뿐만 아니라 공공·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위한 민·관·학·연 자문기구 운영
 - * 최적의 지하화 용량·기법, 사업비 최소화 방안, 상부개발 방향 및 금융비용 최소화 등
- **(주요참석자)**
 - **(국토부)** 장관, 철도국장 등
 - **(지자체)** 서울·부산·인천·세종 등 16개 광역 지자체장(부단체장)
 - **(공공·연구기관)** 철도공단·코레일·LH사장, 국토연·교통연·철기연 원장
 - **(분과위원)** 지하화기술분과(12명) 및 도시개발·금융분과(12명)